

한수원, 사업부제 시행으로 경영효율 향상 나서

한국수력원자력은 7월 6일 오전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책임경영체제 정착과 경영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부제 시행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실적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김종신 사장과 고리, 영광, 월성, 울진원자력본부장, 한강수력본부장 등 5개 사업소장 그리고 본사 각 처실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사업부제 시행 선포식에서 5개 지역별 사업부 본부장들은 사장과 경영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사업부제의 성공적 운영과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사업부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고리 등 4개 원전본부장과 한강수력본부장은 소관 사업부내에서 팀 단위 조직의 신설 및 폐지 등 조직운영 권한을 부여받고, 예산운영의 자율권도 대폭 상향 조정되는 등 자율 책임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대신 매년 임기 중 반드시 달성해야할 중점 관리목표가 부여되고 목표의 달성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되며 그 추진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은 물론 인사와 연계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 김종신 사장은 "이번 사업부제 1단계는 기시행중인 내용을 보완하여 원전 안전운영 기초 하에서 재무적 성과를 강조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사업부별로 목표와 과제를 부여한 것으로, 해당 사업부 본부장들은 소사장으로서는 중심적 역할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업부제 시행, 원전 본부 간 본격 경쟁체제 돌입



한국중부발전은 7월 8일 고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배성기 사장과 황종국 고성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고성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배성기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성풍력발전단지를 완벽하게 건설하고 멋지게 운영함으로써 고성군과 중부발전이 서로 win-win하고, 고성군이 지향하는 목표인 「녹색성장 통일고성」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하였으며, 황종국 고성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고성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한국중부발전은 고성군의 우수한 풍력자원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건설과정에서 생태 및 환경적으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강원도 지역에서 청정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중부발전, 고성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남부발전, 미래성장의 동반자로서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강화

한국남부발전(주)(사장 남호기)는 지난 7월 6일, 한국전력공사 한빛관에서 남부발전의 주요 협력사 및 임직원들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상하래 신개념으로 탄생하는 삼척그린파워”라는 주제로 <2009 KOSPO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삼척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성장의 동반자로서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두산중공업 남연우 상무, 현대중공업 김천영 상무, 고려엔지니어링 안상근사장 등 대·중소기업 40여개 협력사 임원진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남부발전이 2015년 준공 예정인 삼척발전단지 건설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남부발전의 고객지향적인 협력사 지원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사 소개, 남호기 사장 특강,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윤리경영시스템에 대한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남호기 사장은 특강을 통해 남부발전에서 ‘세계 발전소의 모델’로 야심차게 준비중인 삼척발전단지에 적용되는 신개념설계를 소개하여 협력사 임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남호기 사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저열량탄 발전단지 건설, 자연 그대로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계단식 부지조성 및 설비배치, 석탄 저장소 옥내화 등 삼척단지의 최첨단-저원가-친환경 설비 등을 소개하며, 삼척단지 건설의 성공적 추진과 남부발전이 “세계 발전회사의 모델”로 도약하는 데 협력사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미래를 함께 개척하는 파트너로서 동반성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력사 소개 시간에 참석한 전 협력사의 주력제품 및 우수분야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어 협력사간 정보교류와 동일업종 간 네트워킹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남부발전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협력사와의 WIN-WIN 경영을 실현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삼척발전단지 건설 및 중소기업 육성과 투명경영 실현에 대한 회사의 경영의지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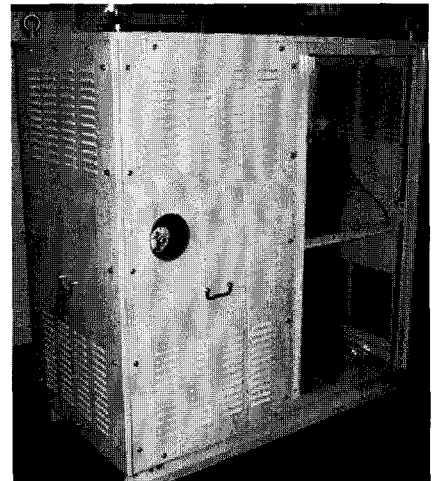
LS산전 몰드변압기, 선박시장 성공적 진출

LS산전(대표 구자균)은 전력기기 제품 중 하나인 몰드변압기가 선박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LS산전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주된 Pazflor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loading Unit :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하역 설비)에 IP32등급의 외함을 적용한 몰드변압기를 수주하고 최근 1차 납품을 마쳐 특수 선박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LS산전의 몰드변압기는 육상시장에서는 이미 핵융합로 Pulse 전원 공급용 몰드변압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적용한 바 있지만, 선박시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LS산전 관계자는 “세계에서 발주된 FPSO 중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 Pazflor FPSO에 성공적으로 납품함에 따라 LS산전이 북미 및 유럽의 선박시장에 처음으로 벤더 등록이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몰드변압기의 선박시장 개척에 나선지 1년도 되지 않은 LS산전이 FPSO외에도 Drill Ship(시추선)에도 변압기 납품을 수주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20여년간 몰드변압기 사업을 해온 LS산전은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계기로 유럽 선진사의 해외 제품이 대부분인 선박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사장 박지원)이 베트남에서 5,400만 달러(700억원) 규모의 발전설비를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멘스(Siemens)와 베트남 호치민에서 약 25km 떨어진 동나이(Dong Nai)주 신흥공단지역에 위치한 연짱(Nhon Trach)-2 복합화력 발전소에 2기의 대형 배열회수보일러(HRGS) 설비를 공급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독자 기술로 설계에서부터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내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지로 납품하여 설치, 시운전 기간을 거쳐 2012년 1월말경 완공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 베트남에서 5,400만 달러 발전설비 수주



이동규 두산중공업 HRSG BU장은 “이번 HRSG 설비의 대부분은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생산공장에서 제작하여 공급하게 됨으로써 납기 및 물류비 절감 등이 가능하다”면서 “베트남 시장 내에서 두산중공업의 높은 인지도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향후 발주되는 HRSG 수주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발전시장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덕분에 신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점진적인 유가 상승과 경제 성장으로 발전 수요 증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두산중공업은 올해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에서도 지난달 14일 이란에서 1,200억원 규모의 HRSG를 수주한 데 이어 20일만에 베트남에서도 2기를 추가해 총 10기의 HRSG를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1990년 후반에 HRSG 사업에 본격 참여한 이후 세계 37개국에 약 370여기를 공급했으며, 2003년 처음으로 이 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데 이어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동 및 유럽, 베트남 지역의 대형 HRSG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